오피니언 리더



방 충 헌
광주동명교회 원로장로

화와 심판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라는 표현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중에서 일곱 나팔 중 우리가 주의하여 읽어야할 미래에 일어날 일중에서 사도요한이 먼저 일어날 일들을 뒤에 배치함으로 우리가 계시록 해석에서 실각한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곧 일곱 나팔 순서이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 까지는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것 이후에는 이땐 이세상의 지상 교회와 인간 세상은 심판을 받아 파괴되고 삶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다섯째 천사의 나팔을 보면 이 세상은 아직 멀쩡하고 드디어 예수님의 보혈로 무저갱에 감금된 사탄이 세상 끝에 풀려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이 사건을 첫째 화라고 명시하고 있고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화이다.

그러니 다섯째 천사의 나팔을 사실은 첫째 나팔로 이해하고 여섯째, 일곱째 나팔 이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울려 퍼져야 심판이 설명 되는 것이다.

화는 지독한 고생을 경험할 사건이지 심판은 아니다. 그 화를 잘 통과하면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겠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면 멸망인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공격하며 이어서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같은 전쟁으로 교회와 세상을 괴롭힌다. 이것이 다섯째 천사의 나팔인 것이다.

그런데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계9: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마병대의 수는 이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이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며,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한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였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교회를 괴롭힌다(계11:7).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계11:11).

하나님은 끝까지 화를 견딘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할을 그들이 들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였다(계11:12). 여기까지가 둘째화이고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온다(계11:14).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계11:19). 이것이 일곱째 나팔이고 언약궤가 보임으로 계명에 비추어 성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 받을 자는 천국으로 올라가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는 것이다.

지옥의 고통의 시작이 첫째 천사의 나팔이고 둘째, 셋째, 넷째천사의 나팔이다. 그 나팔소리는 이 지구의 땅과 바다와 호수와 강과 신천을 두루 다 심판하여 이 지구를 리 모델링 하시고 모든 파괴된 자연환경을 되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설탕을 대신하는 액상과당 이야기



액상과당의 본래 이름은 고(高)과당 옥수수 시럽(HFCS; High-fructose corn syrup)이다. 한국에서는 액상과당 시럽이라 부르고, 미국에서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HFCS)이라 부르기에 주성분이 과당으로 된 시럽인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액상과당(HFCS) 실제 주성분은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대략 1:1 정도)로, 이들이 물에 녹아있는 시럽형태로 이용된다. 국내에서는 액상과당으로 명명되었지만,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이 시럽을 상업화할 때, 긍정적 의미를 담은 고과당이라는 용어를 붙여 고과당 옥수수시럽 (HFCS)으로 명명하였다. 당시 과학지식으로, 과당이 건강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포도당(GI = 100)과 달리, 과당(GI = 25)이 혈당수치를 크게 높이지 않기에 과당에 대한 좋은 당류 이미지를 나타내고 싶은 상업적인 의도로 이를 명명했을 것이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HFCS) 이름이 정확한 성분명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이 이를 과당인 당료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과당 성분이 절반 정도인 HFCS로 인한 건강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계속 나오게 되자,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고 여러 번 그 이름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였다. 한 예로, 2012년 미국 옥수수 가공협회에서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 이름을 간결하게 옥수수 당(corn sugar)으로 바꾸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본래 HFCS를 감미료로 개발했던 미국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그 구성성분을 고려하여 포도당-과당 시럽(glucose-fructose syrup) 이라고 부르고 있다.

액상과당 HFCS는 옥수수 전분을 포도당으로 효소분해하고 포도당 일부를 효소를 이용하여 과당으로 이성질화로 변환시켜 제조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HFCS 55 액상과당은 포도당(약 32%)과 과당 (약 42%)이 주성분이고 그 외에 약 3% 정도의 맥아당이나 올리고당 등류가 함께 물(약 23%)에 녹아 있는 시럽이다. 국내에서 액상과당(시럽)이라는 이름대신 때때로 당시럽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물엿도 동일하게 옥수수 전분으로부터 만드는데, 맥아당(엿당)이 주요 당분이며 보통 전분 시럽이라 부른다]. 액상과당 시럽은 콜라, 사이다, 커피, 주스 등의 음료나 제과 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수프, 잼, 통조림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설탕을 대신하여 액상과당 시럽이 사용되는 이유는, 액상과당은 액체이기에 가공식품 제조과정에서 고체 설탕에 비해 제조/보관/당도 등 생산공정의 편리성 때문이고, 가장 큰 이유는 설탕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제적 측면 때문이다.

옥수수 시럽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액상과당은, 유전자변형 GMO 옥수수 전분을 원료물질을 효소분해하여 제조하기에 절반은 자연물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우에서 얻은 천연성분 자체를 정제하여 얻기에 자연(천연)물질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액상과당 HFCS 55 단맛의 정도는 설탕과 거의 비슷하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천연의 설탕도 마찬가지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액상과당같은 가공식품 섭취도 피하기 어렵기에 현명한 소비자의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원재 교수
• 서울대와 KAIST 졸업
• KIST 연구원으로 근무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IUC) 박사학위 취득
• 동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 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 약학대학 학장과 임상약학대학원장 역임

선교칼럼 107



장찬익 선교사
아일레선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협동목사
저서. 이슬람선교의 돌파구

"한 뿌리에서 나온 세 종교는 이슬람의 거짓말이다"-1

문제 :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아브라함 같은 한 뿌리에서 나온 세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입니다."

대답 :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과 쿠란의 아브라함이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도 서로 다른 하나님입니다.

지금 한국의 유튜브에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영상들은 한국의 무슬림들이 한국에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작한 영상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아직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의 조상이 같은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이슬람의 근거없는 주장에 그만 속아야 하겠습니다.

`이슬람의 주장.

이슬람은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비록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각 지역과 민족과 나라마다 서로 다를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절대자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은 같은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3대 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의 조상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에 따라서 이스마엘의 후손이면 이슬람이고 이삭의 후손이면 유대교와 기독교일 뿐 모두가 아브라함 같은 한 뿌리에서 나온 같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의 주장

그러나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3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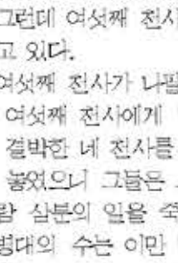
쿠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자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조상이 서로 다릅니다.

둘째, 아브라함도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쿠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름이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름이 아브탐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또 쿠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불속에 던져진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알라가 "불아 식어라" 말해서 아브라함은 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출받았다고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ccc.or.kr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총회장 정서영 목사입니다. 합동개혁 총회신학은 청교도 개혁 신학의 요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계로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박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학부 (졸업후 전도사 사역)	신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관리는 본교인 서울 남현동 총신에서 주관함.
학술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2. 원서접수 : 수시접수(062-266-0153)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 0명

광주총신 특별사항
● 신 학 부 :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 제 수업)
● 신학연구원 :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http://gsccc.or.kr)
● 주 야 간 반 : 매주 월/화 (주간:오전10시, 야간:오후6시)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 부부학생특혜
● 최고의 교수진 / 설교전문가 / 실천목회자 양성
● 교회 개척,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한교연, 한기총, 한장연, 세기총 가입 교단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
광주총회신학 연구원장 : 임강원 목사

토요반 수시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신학교육기관입니다.